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각종 재해·질병 대비 가축 보험료 지원

정읍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피해를 보상해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일제히 발송

고창군(군수 심석섭)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를 29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 대비 7.06% 증가했고, 주요 증가 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 격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부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산해수욕장 휴양콘도 추진

부안군, 자광홀딩스와 실시협약 체결

부안군은 13일 부안군청에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자광홀딩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광수 부안군 의회위원장 (주)자광홀딩스의 정은수 대표가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자광홀딩스는 급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고품격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여 새만금 및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발전에 따른 지역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자광홀딩스는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 변산면 대항리 612번지 4만3,887㎡부지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0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6,287㎡ 규모의 리조트 4동(7층~11층, 74실), 프라이빗 빌라 5동(2층) 총 79실의 프리미엄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자광홀딩스의 세부 투자 계획에 따르면, 30평형에서 50평형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 구성의 객실과 260평형의 특급적인 프라이빗 독채, 인피니티 수영장과 400인 규모의 컨퍼런스룸,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특화시설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객실에서 변산해수

욕장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서해바다의 낙조를 조망할 수 있게 디자인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4월 26일 (주)자광홀딩스, 전라북도, 부안군은 관광사업(관광숙박업) 투자에 따른 투자협약을(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MOU와 더불어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투자보조금 지원과 관광숙박업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며, (주)자광홀딩스는 명품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민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부안군과 (주)자광홀딩스는 급변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적인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는 지난 12일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고경윤 의원, 부의장에는 황혜숙 의원을 선출 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읍신림조합의 주요 현안 및 시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읍신림조합을 찾았다.

“정읍시 발전 위해 함께 노력”

시의회의장단, 산림조합 방문 현안 청취

정읍시의회는 지난 12일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고경윤 의원, 부의장에는 황혜숙 의원을 선출 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읍신림조합의 주요 현안 및 시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읍신림조합을 찾았다.

고경윤 의장은 인사말에서 “각 기관·단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관·단체 간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협업을 통해서 정읍시 발전을 이뤄나가고 11만의 정읍시민과 5,400여 명의 산림조합원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의 고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황혜숙 부의장은 “최근 들어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정읍시 지역의 산림보호와 녹색경관 조성 등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정읍신림조합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학수 조합장은 정읍신림조합의 연혁 및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성과가 장기기에 걸쳐 나타나 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시행되고 관리 되어야 하나 농업에 비해 입업에 종사하는 입업인 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정읍시의회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밝혔다.

장학수 조합장은 정읍신림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 실시하더라도 사업금액 8,800만은 이상은 전라북도로 입찰 확대하여 경쟁을 하다 보니 영리사업의 입찰 참여로 해당 지역 관내 업체의 낙찰확률이 희박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날 두 기관은 각 기관·단체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100% 받으려면 17개 준수사항 실천해야

정읍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가 감액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또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마을 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

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던 농업인 의무교육도 올해부터는 미이수 시 준수사항의 10%가 감액된다.

현재 정읍시의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율은 65.77%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9월 15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정작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 방침”이라며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29대 노형수 부군수 취임

민선 8기 고창군이 노형수 전 전북도청 주택건축과장을 부군수로 맞으며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청원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이주철 부군수 이임식과 제29대 노형수 부군수 취임식이 열렸다.

새롭게 취임한 노형수 부군수는 “고

창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 8기 고창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기술 전문가로 중앙부처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숙원인 노을대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노 부군수는 고창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북도청,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과하수사연구소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지원과, 전북도청 지역정

책과, 도시경관팀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등으로 일해 왔다.

직전에는 도청 주택건축과장을 역임하며 고창군의 고령자복지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주철 전 부군수는 “고창에서 영예로운 부군수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영광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와 군민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떠나서도 고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철 부군수는 은화한 리더십과 끈끈한 업무추진으로 조직내에서는 신망이 두터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부터 시행

내고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 지역농협 6개소와 최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에 기부하면서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단체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를 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또한 기부금의 30%를 지역 농수산품, 관광상품권,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역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부안군지부와 부안지역 농협 6개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농산품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